

“동물, 물건 아니다” 법적 보호받는 ‘생명’으로

법무부, 제3의 지위 부여 개정안 입법예고... 학대·유기 처벌 강화 동물 장례업 등 법적 지위 규정할 시행책 뒤따라야 실효성 있을 것

그동안 법적으로 ‘물건’ 취급을 받았던 동물이 새로운 ‘제3의 지위’를 부여받아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 19일 입법예고를 했다. 법무부는 동물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그동안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아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과 유기동물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공개한 최근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검거·수치 현황을 보면 2010년 69건과 2011년 98건에서 2019년에는 914건으로 폭증했다. 2019년의 경우 수치만 인원은 973명이지만 구속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동물보호법 위반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후 동물학대 단독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로, 동물학대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도 없다.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쳤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예상이다. 동물에게 새로운 지위를 부여하게 되면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에 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법체계와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는 법체계에서 근본적으로 동물학대 등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같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기동물도 감소될까? 광주에서 기르다 버려지는 반려동물은 하루 평균 11마리다.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유기도 덩달아 늘고 있는 것이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기준 광주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총 5만446마리다. 광주지역 동물단체는 광주시 반려동물을 35만 7000마리 정도로 집계하고 있고, 이중 등록 수는 14.1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의무적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등록제가 시행된 지 8년이 됐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 조차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19일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동물은 새로운 지위를 갖게 돼 동물학대 범죄와 동물유기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 늘었기 때문에 동물 장례업·화장장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물보호단체인 ‘가치보듬’의 조경 대표는 “동물 등록법이 있지만 등록률은 10%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동물 법적지위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책 등이 따라줘야 법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동물단체들은 이번 민법 개정으로 동물 유기에 대한 강제와 처벌강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동물은 물건으로 처리돼 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졌다. 동물을 매장할 경우 불법 폐기물 매립이 된 것이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보는 인식

이 늘었기 때문에 동물 장례업·화장장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물보호단체인 ‘가치보듬’의 조경 대표는 “동물 등록법이 있지만 등록률은 10%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동물 법적지위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책 등이 따라줘야 법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유류 오염 피해보상’ 진도 어민 청구 각하 대전지법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는 손실보상자 결정권자 아냐”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유류오염 피해를 주장하며 손실보상을 청구한 진도 어민이 행정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현숙)는 진도 맹골군도 어촌계 주민 A씨가 해양수산부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세월호 배·보상 심의위)를 상대로 낸 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피해어업인 손실보상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에 손실보상 대상자와 보상금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상

황에서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가 손실보상 담당자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확인해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 범위에 관한 결정만 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맹골군도에서 미역 양식 등을 하는 A씨는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선박유가 유출되면서 해양이 오염됐고, 이에 따라 미역 채취량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2017년 3월에 피해 추산액 상당(5000만원)의 손실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에서는 해경 방제기록 등이 없다는 이유로 2019년 3월 기각 결정했다.

연합뉴스

전남대 ‘연구성과 활용’ 중개연구단 선정 과기부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R&D사업’

전남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 일자리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R&D사업’의 중개연구단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바이오 ▲나노 ▲정보통신 ▲기후·환경 ▲융합기술 등 5대 주요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대학·출연연구소의 유망 성과를 기술사업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개연구단을 통해 후속연구개발, 테스트 시험·인증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대 ‘CPI 기반 테라노스틱스 실용화 플랫폼 개발 중개연구단’은 대학이 보유한 난징, 치매, 골다공증 및 안 진단·치료 기술 등에 대한 실용화 전

락을 제시해 중개연구단에 선정되면서 앞으로 3년간 모두 84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전남대 중개연구단은 13명의 교수진과 산학협력단 기술경영센터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모두 5개의 세부 과제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또 진단에서 치료까지 동시에 가능한 테라노스틱스 분야의 원·스톱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바이오 핵심기술과 대량생산 기술 등의 융·복합을 통해 기술성숙도를 높여 사업화를 이룰 계획이다.

정성택 총장은 “전남대는 차세대 의약품·진단기술 사업화를 적극 지원해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내년 예산 시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광주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오는 8월27일까지 시민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내년도 예산 투자방향과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의 적정배분 등 효율적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서다.

광주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과 학부모·교직원·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은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설문조사 기간에 수렴한 의견은 사업부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타당성 검토와 심의를 거쳐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

안석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담당관은 “실효성 있는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시 교육청이 진행한 교육재정 설문조사에는 총 215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2021년도 본예산에 환경교육 교과서(실천) 만들기, 인성교육 프로그램 확대, 노후 시설 개선 등 27건의 시민의견이 반영됐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 광주 북구, 광주 유일 선정 국비 10억 확보

광주시 북구가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 공모에서 광주시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정부의 한국판뉴딜 관련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자 마련됐으며 전국적으로 총 15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북구는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지역 곳곳에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을 감안,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AIoT 기반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내용은 ▲침수수위측정센서 ▲침수측정센서 ▲CCTV 설치 ▲AI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침수지역 예측 ▲인공지능 기반 영상관계 플랫폼 구축 ▲지역별 침수현황 알림 등이다.

북구는 올 여름철도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만큼 우선 지역 내 상습 침수구역(신안교, 침탄산단 등) 총 40곳에 수위센서를 설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자산·공제 3,000억 달성 기념 경품 대전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2020년 출자금

3.0% 배당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담보대출 특판(100억)

최대한다 80%

최저이율 3.5%

대출상담 환영

집단대출(중도금, 잔금)

관리형 토지신락 시업비 대출

전세(임차)자금 대출

신축사옥 임대문의 환영

※임대업종: 한방병원, 병의원, 커피숍, 초밥전문점 등

MG금남새마을금고 본점 T.223-8007(대인동 한미쇼핑 1층) 총장지점 T.223-7217(충장로5가 입구)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